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1호 【루계 제24474호】 주체103(2014)년 3월 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신문이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꽁고 브라자빌 아크람출판사에서 2월 7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의 전문을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2월 10일부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오스트리아의 윈에 있는 요제프게바우에르출판사에서 2월 14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로씨야의 연해변강 울라지보스또크시 쏘로크워쎔 차쏘브출판사에서 2월 1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의 요지를 타이신문 《더 네이순》 2월 9일부가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중국, 로씨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월 23일과 24일 중국과 로씨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 1월 6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이곳에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건설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산사업소건설이 끝난 즉시 어로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선장, 어로공모집과 그들을 만능어로공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잘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통신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수족관, 조류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제친선소년회관의 설계가 특별히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야영생들이 이곳에서 영화와 여러가지 록화편집물도 마음껏 볼수 있게 최신식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넓고 시원하게 닦아놓은 운동장을 보시고 륙상주로를 만들어주고 축구장바닥에 인공잔디까지 깔아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이번에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현대적인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관도 새로 꾸려주고있는데 야영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영소에 수족관과 조류사도 새로 건설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야영소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사업은 올해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해야 한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념원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개건전투를 제기일에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이 나라의 인터네트홈페지 인민망, 동북망,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모두다 떨쳐나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

오늘은 식수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이날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우리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된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킬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산과 들에 많은 나무를 심어 풍치수려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뜻깊은 이날의 귀중한 가르치심이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준 력사적계기로 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나무심기를 하는것으로부터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에서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해주며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현대적인 공장과 도시, 농촌건설을 다그치자고 해도, 탄광과 광산에서 더 많은 석탄과 광석을 캐내자고 해도 목재가 있어야 하고 농촌경리를 발전시키자고 해도 나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연피해를 막고 공기를 맑게 하자고 해도 산림이 울창해야 하고 토지를 보호하자고 해도 나무가 많아야 한다.

우리는 산림조성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모든 산들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성과적으로 할수 있다. 해당 부문에서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별로 계획을 주고 누구나 나무심기에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과 학교들에서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나무심기에서는 일군들이 앞장서야 한다. 일군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기술적요구에 맞게 성의껏 심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은 산림의 실태와 지대적특성,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년차별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는 산림조성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단계별로 나무심기를 해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유용한 목재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밤나무림, 팔프 및 종이원료림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한다. 특히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관광도로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도로주변의 산에 력량을 집중하여 여러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나무심기는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해야 한다. 나무는 해당 지역과 지대의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심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나무의 생장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도록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배합하여 심어야 한다.

가로수들을 심을 때에는 도로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선택하여 심도록 하여야 한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산이 많고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지대적특성에 맞게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림농복합경영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나무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심어 토양의 침식을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산림을 조성해야 한다.

땔나무림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 시, 군들에서는 주민지가까이에 땔나무림적지를 정하고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땔감으로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벌방지대에서는 강하천과 저수지주변, 습기가 많은 비경지들에 생산성과 발열량이 높은 긴잎버드나무를 비롯한 땔나무수종들을 심어 자체로 땔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나무에 잣나무를 접하는 방법으로 산림을 개조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7(2008)년 8월 리원군산림경영소양묘직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소나무에 잣나무를 접하는 방법으로 잣접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지방마다 기상기후조건이 다르며 같은 지방에서도 해비침률에 따라 땅이 녹는 시기가 같지 않으므로 나무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가 적기에 기술적요구대로 심어야 한다.

나무모뜨기와 포장, 운반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나무모들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나무모는 뜬즉시 진흙물이나 닥풀우림액에 뿌리를 담그었다가 젖은 가마니나 마대에 싸서 운반하여 제때에 심어야 한다.

나무를 기술적요구대로 정성을 들여 심은 다음에는 물도 주고 풀과 잡관목같은것들을 베여주면서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해당 부문에서는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가에 대해서만 총화할것이 아니라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정형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도, 시, 군들에 수십정보씩의 양묘장들이 있다.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자면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수 있게 양묘장들을 잘 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다고 하신 스트로브스소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리용가치가 높은 나무모들을 계단식으로 키워내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식수계획에 따르는 나무모확보정형을 따져보고 지역별, 경영목적별 수종보장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는것과 함께 부족하거나 없는 수종들은 다른 도, 시, 군들과의 련계밑에 교류,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삽목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 뽀뿌라나무와 버드나무 등은 삽목의 방법으로 키워내는것이 좋다. 창성이깔나무, 적목, 향나무, 수삼나무, 가문비나무, 단나무 등은 온실에서 삽목번식해야 한다. 왕밤나무, 흰잣나무, 기름밤나무, 수유나무 등은 우량품종접가지를 마련하였다가 접모생산을 기술적요구대로 해야 한다.

산림자원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며 심은 나무들이 집짐승들과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 국토관리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1만여t의 석탄을 증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안고 날마다 석탄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적으로 2월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계획보다 1만여t의 석탄을 증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보다 큰 석탄증산성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맞이할 불같은 열의안고 늘 탄광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면서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탄광들에서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는데 화력을 집중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중요대상공사를 일관하게 밀고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제남탄광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이미 마련되여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현행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한편 굴진력량을 부단히 보강하면서 전망이 좋은 탄밭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하고있다.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사이에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6갱, 7갱, 8갱의 탄부들이 앞장에서 힘차게 나가고있다.

혁신은 남양탄광에서도 창조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채굴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내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하고있다.

덕성탄광의 탄부들이 날마다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증산투쟁으로 들끓는 갱막장들에 동발나무를 비롯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면서 석탄생산에서 앞장선 1갱과 2갱의 경험을 다른 갱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높은 증산성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덕천탄광, 서창청년탄광에서는 지난해 굴진을 앞세워 전망이 좋은 탄밭들을 넉넉히 마련해놓은데 기초하여 앞선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형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탄광에서는 다른 탄광들에 비해 막장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뽐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망이 좋은 개소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을 크게 늘이고있다.

혁신은 월봉탄광에서도 일어나고있다. 탄광적인 석탄생산에서는 회둔갱 채탄3중대원들이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해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이곳 채탄중대원들은 첫달 석탄생산계획을 근 200%로 훨씬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올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탄부들의 증산열의가 날로 높아가는데 맞게 덕천탄광기계공장, 서창영예탄부공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보장단위 로동계급도 탄광설비부속품, 압축공기배관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혁신자대렬이 늘어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방직공들이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같은 열의안고 천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직포공 한명희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상반년계획완수자들이 나왔고 그 대렬은 시간을 다투며,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있다. 2월말까지 공장적으로 상반년계획완수자는 20명에 달하며 근 70명의 1.4분기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

지금 이곳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직공들의 생산열의는 비길데 없이 높으며 이들이 일으킨 혁신의 불바람은 온 나라의 방직공장들에서 비약의 불길로 타번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장군님의 애국주의로 대중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칠 때 우리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이 공장의 방직공들에게는 온 나라에 소리치며 자랑하고 싶은 남다른 행운이 있다.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방직공들의 합숙건설부지까지 잡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때로부터 불과 몇달사이에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으로 하여 현대적인 합숙이 겨울을 모르고 쑥쑥 일떠서 완공의 날을 내다보는 가슴벅찬 현실이 펼쳐졌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평범한 우리 방직공들을 그처럼 귀중히 여겨주시며 언제나 기쁨만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다녀가신 후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던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사랑을 받아안은 이곳 로동계급은 고마움에 울고 격정에 목메이며 보답의 불타는 맹세로 가슴들먹이였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드높은 열정을 총폭발시켜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달려나가도록 사상사업의 힘찬 포성을 울려가고있다.

—인민들에게 질좋은 옷감을 더 많이 보내주는것으로 하늘같은 이 은정, 이 사랑에 보답하리라!

온 공장이 이런 충정의 열의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낮과 밤이 따로 없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따로 없다. 자기 맡은 일에 전심하여 높은 실적만을 기록하려는 승벽심이 일터마다에 차넘치고있다.

혁신은 다추다기대운동으로 두몫, 세몫씩 기대를 맡아 내달리고있는 직포공, 정방공들속에서 먼저 창조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높은 천생산성과로 보답하자는 불같은 호소에 화답하여 용솟음치는 열정을 안고 일터를 떠날줄 모른다.

지난해에도 한해동안에 4년분계획을 수행하여 공장적으로 소문낸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직포공 한명희동무는 올해에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만만한 투지로 여러 기대를 맡아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제일먼저 상반년계획을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공장안의 청년방직공들이 스스로 생산돌격대활동에 망라되여 보답의 큰걸음을 내디디고있다.

방적종합직장 3정방직장 정방공 리윤미,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권사직장 권사공 석은희, 견방종합직장 방적직장 합사공 추윤경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방직공들이 혁신의 앞장에 서서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기세좋게 달려나가고있다.

공장에 첫발을 들여놓은데 불과한 편직사직장 정방공 강철옥,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포공 조청희동무들도 청춘의 푸른 꿈과 리상을 보람찬 일터에서 꽃피워갈 포부를 안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리고있다.

견방종합직장 2직포직장의 직포공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 매일 맡겨진 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것으로 온 공장안에 사회주의경쟁을 뜨겁게 호소하며 총진군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중요물동수송에 더 큰 박차를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이 자랑찬 증송성과를 안고 뜻깊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요구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기 위해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합니다.》

철도성 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요구하는 물동수송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의 일군들은 련관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석탄과 전력,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물동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주체철과 주체비료생산정상화를 위한 석탄수송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각지 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고조전투로 끓어번지는 탄광들과 화력발전소,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물동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함흥철도국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대한 석탄집중수송전투를 계속 힘있게 벌려 매일 계획보다 많은 짐을 실어나르고있다.

평양철도국과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서부지구의 탄광들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과 금속공장들에 대한 집중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철도국에서는 화력탄집중수송에 필요한 기관차와 화차배차조직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일군들이 주요역들을 맡고 내려가 집확보정형과 집중수송렬차들의 운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기관차, 화차들의 맞물림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석탄집중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려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철강재생산으로 들끓고있는 금속공장들과 청천강화력발전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더 많은 석탄을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전투를 과감하게 벌리고있다.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북부지구 금속공장들에 대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자랑찬 증송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두줄기 궤도우에 위훈을 수놓아가는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홍철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철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재령광산에서 —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뜻 전하며 숲은 설레인다

방선천리 초소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일터마다에서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였다.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는 사람들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가는 사상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식수절을 맞으며 조국산천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가는 자랑찬 현실을 음미해볼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미소가 어리여온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더더욱 푸르러가는 이 땅의 숨결도 들으시고 눈부신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줄기와 잎새마다에 정겨운 눈길을 보내시는것만 같아 가슴뭉클 젖어오는 봄날이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가장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가 그대로 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여 심어지고 가꾸어진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오늘은 이 땅에 무성한 숲을 펼치여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고있다. 설레이는 푸른 숲은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를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가꿀 때 움터나게 되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두해전 식수절에 펼쳐졌던 감동깊은 화폭을 잊지 못하고있다.

봄빛 짙어가는 수도교외의 어느 한 도로를 따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야전차행렬이 달리고있었다. 야전차행렬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는 두그루의 나무가 실려있는 화물자동차도 있었다.

그날 아침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시찰을 떠나시기에 앞서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적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때문일것이라고 생각한 일군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하지만 인차 그는 자기의 생각이 빗나갔음을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제 곧 종비나무와 목련을 각각 한그루씩 준비하라고 지시하시였기때문이였다.

그제서야 오늘이 식수절이라는데로 생각이 미친 일군의 뇌리에 떠오르는 화폭이 있었다.

어느해 식수절에 즈음하여 우리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정성껏 심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그 감동깊은 화폭이 텔레비죤화면에 비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았던가.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그이는 진정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약돌 하나까지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오신분이시였다. 그렇듯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였기에 이 땅을 노리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 또한 더없이 강렬하신 그이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이고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살아갈 삶의 보금자리인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더 푸르게 하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끝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수림이 설피여진 산들을 보실 때면 너무도 가슴이 아파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고 푸른 숲 우거진 초소와 일터,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너무도 기쁘시여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시던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한평생 걸으신 애국의 길을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것이다. 바로 이렇게 되여 나무를 싣고 떠난 류다른 길이였다.

이윽고 야전차행렬은 부대정문으로 들어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사이 일군은 화물자동차에서 나무를 내리우고 또 나무를 심을 구뎅이를 파놓도록 하였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부대를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당으로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오늘은 해방직후 백두산 3대장군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륭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적인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깊은 추억을 담아 이야기하시였다.

숭엄한 격정속에 일군들은 이 나라에 푸른 숲의 력사가 시작되던 잊지 못할 그날에로 소중한 추억의 노를 저어갔다.

주체35(1946)년 3월 2일, 상처입은 모란봉의 여기저기를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모란봉에 나무도 많이 심고 꽃들도 많이 심어야 하겠다고, 모란봉을 공원으로 잘 꾸려 평양시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뜻깊은 그날 해방된 오늘에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이 모두 인민의 것으로 되였다고 하시며 수림화, 원림화의 원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

백두산위인들께서 모란봉에 오르시였던 바로 그날부터였다. 조국산천의 전변의 력사가 시작된것은.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주체36(1947)년 4월에도 문수봉에 오르시여 잔뿌리 하나라도 상할세라, 바람에 넘어지기라도 할세라 두손으로 흙을 다지시며 나무를 심으신 우리 수령님, 자신께서 드셔야 할 한모금의 물마저도 조국땅에 뿌리내릴 애어린 나무에 부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온 나라 인민이 그려본것, 그것은 조국의 미래였고 온 세상에 빛을 뿌릴 내 조국강산의 밝은 모습이였다.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잊지 못할 사연들을 더듬는 일군들을 잠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식수절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면서 나무심을 장소를 찾으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방금 파놓은듯 한 구뎅이들을 보시고 식수는 자기가 구뎅이를 직접 파고 심어야 식수라고 말할수 있다고, 식수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김정일**애국주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자기들의 그릇된 생각을 뉘우치던 일군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머리를 들었다. 아직은 누구도 그속에 담겨진 깊은 뜻을 다 알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세차게 울리는 느낌에 눈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였던가.

일군들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라는 표현을 심장속에 받아안으며 흥분을 걷잡지 못하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새 삽을 드시고 맞춤한 자리를 골라 힘있게 삽날을 박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걸싸게 땅을 파제끼시였다.

한삽 또 한삽…

동행한 일군들도, 부대의 지휘관들도 저저마다 삽을 들고 달라붙어 열심히 흙을 퍼올렸다.

잠시후 구뎅이파기가 끝나자 거기에 나무 한그루를 조심히 들여앉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종비나무는 가지가 많은쪽이 남쪽방향으로 향하게 심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흙을 덮을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그대로 나무를 심으시였다.

이렇게 나무 한그루를 정히 심으신 그이께서는 련이어 목련을 심을 장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삽을 드시고 일군들에게 구뎅이를 깊이 파야 나무의 뿌리부분이 완전히 땅에 들어갈수 있다고 나무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숨결을 안고 푸르러 설레이는 두그루 나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끝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의 길에서 정성들여 나무를 심으시면서 조국산천에 아름다움을 더하여주시려 깊이 마음쓰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끝없이 사랑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응당 앞장서야 한다는 뜻깊은 당부를 남기시였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거창한 애국사업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군대가 앞장서기를, 선군조선의 넋이고 부강번영의 추동력인 **김정일**애국주의가 시대정신으로 세차게 맥박치도록 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선도자적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때뿐이 아니다.

풍요한 가을의 선들바람에 구수한 낟알향기가 풍겨오는 어느해 9월말에 있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돌이켜진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작업복차림을 하고 오라는 련락을 하도록 하시였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것일가 하는 의아한 생각을 하며 서둘러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일군들을 반가이 맞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새 품종의 잔디를 다 심어보고 그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품종의 잔디를 골라 온 나라에 퍼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도시를 록화하는데서 잔디를 많이 심는것이 중요하다고, 시내에 사철 푸른 잔디를 비롯하여 좋은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으면 도시의 면모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몸소 일손을 다그치시였다.

일군들의 작업모습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며 씨뿌리기를 지도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자고 말만 할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도시와 구역, 자기가 일하는 단위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생땅이 드러난 곳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뿐아니라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온 나라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려는것은 나의 구상이고 결심입니다. …

잔디심기를 하신 뜻깊은 그날은 일군들에게 참다운 애국에 대한 강의와 함께 고결한 충정의 씨앗을 심어주신 날이였다.

정녕 조국과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이렇듯 숭고하고 열렬한 사랑과 애국헌신이 있기에 봄빛넘친 내 조국강산은 더더욱 찬연한것 아닌가.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숲은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뜻 전하며 오늘도 설레인다.

본사기자 리금분

우리 당 사상사업발전의 길에서

문필가들에게 안겨주신 믿음

주체54(1965)년 4월 어느날 새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이 새는줄도 모르고 정열적으로 창작전투를 벌리고있는 문필가들을 찾아주시였다.

사람들이 아직도 단잠에 들어있을 이른새벽 자기들의 사무실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게 된 문필가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을 새워 글을 쓰느라고 피곤하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자신께서 바치시는 로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걱정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문필가들은 피곤하지 않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상 밤을 새우는데 왜 피곤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론 밤을 새운다는것이 헐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수령님께서 안녕하시고 오늘도 빛나는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인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날마다 새 소식을 전해주어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투쟁의 용기를 북돋아주는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문필가들이 지니고있는 남다른 긍지를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필가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문필활동도 아무 의의가 없다고, 우리의 문필가들은 취재로부터 구상, 집필의 모든 활동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우리 문필전사들의 제일생명이라는 참뜻을 깨우쳐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깨우쳐주신 문제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의지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처하여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야말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전도와 사회주의의 앞날은 새 세대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청년조직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적후비대로서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조직들이 자기의 본신임무수행에 힘을 넣지 않고 이러저러한 행정실무적사업에 치우치면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육성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한데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일부 나라들의 비극적현실에 대하여 다시금 심각히 돌이켜보게 하는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서 일군들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현시기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본사기자

한없이 고결한 인민적풍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한없이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한평생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주체51(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던 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선거에 참가하시기 위해 평양시의 한 선거장으로 가게 되시였다.

승용차가 있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선거장에 자신의 공민증을 가지고가는지 알아보시였다. 순간 수행일군들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인민들이 높이 우러러받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공민증을 지참하지 않으신들 그 누가 그이를 알아뵙지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섰던것이다.

한 일군이 그이께 선거장에 공민증을 가지고가지 않으셔도 일없지 않겠는가고 자기의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다정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가 말한것처럼 설사 내가 공민증을 안가지고간다고 하여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겠소. 하지만 나는 선거장에 공민증을 꼭 가지고가야 합니다. 나도 공화국공민인데 나라에서 제정한 법을 나부터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소.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내가 인민들우에 서있는 별다른 존재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소.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선거장에 공민증을 가지고갑시다. …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모두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마냥 뜨거워졌다. 인류력사 그 어느 갈피에 자신을 평범한 인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하며 이렇듯 소박하고 겸허하게 생활한 위인이 있었던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문득 그 누군가가 들려준 하나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떠올랐다.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8월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리에 있는 약수터에 들리시였다.

당시 이곳 주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이곳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약수터앞에 솔문을 만들어세우고 그앞에 경비까지 세워놓고있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잠시 약수터주변을 둘러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비를 서고있는 농민에게로 다가가시여 수고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 그 농민은 그이께 미안하지만 증명서를 좀 보여주실수 없는가고 말씀을 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의 증명서말입니까라고 하시며 그에게 자신의 증명서를 꺼내보이시였다.

증명서를 받아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던 농민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뜻밖에도 증명서에는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기들에게 땅을 분여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존귀하신 존함이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죄송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 농민의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경비를 잘 서고있다고,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는가 물으신 다음에야 약수터안으로 들어가시였다. …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민증에서 오손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신 다음 그것을 소중히 품안에 넣으시였다.

이날 선거장에 도착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공민증을 보이신 다음에야 투표에 참가하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자신도 인민의 한 성원이라는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꼭같이 생활하시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혜산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령도

우리 조국은 위대한 사상강국, 불패의 정치대국이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당당한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는것은 총대와 함께 사상을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장장 수십성상 사상론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강위력한 사회주의사상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사상의 위력이다. 사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의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광범한 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여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승리의 근본비결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내놓으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중시로선을 구현하시며 사상사업강화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패의 당과 정권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도 사상을 틀어쥐고 건설하시였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세기적인 변혁도 인민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1970년대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고 1980년대를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다.

특히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지난 1990년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우리의 사상진지를 금성철벽으로 다져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상중시,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정치의 근본특징이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견인력이 있다.

무적의 총대와 함께 사상의 보검으로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시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떨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마련해주신데 있다.

시대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사상리론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에도 명백한 해답을 줄수 있는 사상리론을 가진 혁명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시는 나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오시였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에 대한 사상리론, 사상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사상리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는데서 제기되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들이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또 하나의 거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사상을 새롭게 발전풍부화하신것은 특기할 공적으로 된다. 선군사상에는 총대를 중시하고 그에 의거할데 대한 우리 시대 혁명의 근본원리가 담겨져있고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력량편성문제가 새롭게 밝혀져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불패의 강국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사회주의승리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은 오늘 21세기 혁명의 지도적지침으로, 사회주의위업승리의 필승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오늘 선군의 위력으로 그 어떤 원쑤도 침범할수 없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튼튼히 다지고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을 가일층 발전풍부화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이야말로 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김일성**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천만군민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키우신데 있다.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다. 따라서 사상사업을 앞세워 전체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나가는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어떤 사업에서나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활동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중요한 원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도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에 첫째가는 힘을 돌리시였고 경제를 추켜세우는데서도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우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교양, 강연, 선동을 비롯한 당사상사업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시고 우리 당사상사업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격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신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당정치사업의 본보기들을 사회에 적극 일반화하는 과정에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은 혁명군대의 혁명정신과 전투적기질을 닮은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바른 사상사업방침을 제시하시고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야말로 우리의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게 한 근본담보로 되였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를 천겹만겹이 되여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된것은 몇천만t의 쌀과도 대비할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다. 이 불패의 혁명대오가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억척불변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게 하신데 있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킬 때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된다.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을 나라의 강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적무기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사상사업에 총화력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모든 당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시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혁명의 송풍기, 가속기가 되여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기자, 언론인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한 기사, 편집물들로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도록 하시고 모든 선전선동사업을 전투현장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온 나라에 총진군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되였고 CNC기술에서의 첨단돌파와 더불어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대비약, 대혁신의 눈부신 성과들이 다계단으로 이룩되게 되였다. 세계를 진감시킨 이 위대한 승리는 사상을 앞세워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시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에서 더 큰 비약에로 진공속도를 높여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사상의 위력, 천만군민의 정신력으로 인류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강성국가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떨쳐온 우리 혁명의 긍지높은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1970년대처럼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사상의 위력으로 온 나라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애국의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오수경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담한 목표, 주도세밀한 작전

국토환경보호성에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이 산림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성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드높은 열의를 안고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성일군들은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성일군들은 산림의 현 실태와 지대적특성,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10여만정보에 수억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쓸모없는 소나무림을 잣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작전하였다. 또한 모든 시, 군들에서 나무의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배합하여 심으며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도록 하였다. 고속도로와 관광도로를 비롯하여 주요도로와 철길주변의 산들에 나무를 심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이 목표를 수행할수 있는 전망도 락관적이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주변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칠 열의를 안고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특히 양묘장들에서 튼튼히 키운 나무모를 제때에 보장할수 있게 모든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성일군들은 이런 분위기에 맞게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사업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빨리 자라고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계단식으로 많이 생산보장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봄철에 심을 나무모들을 잘 준비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중앙양묘장에 달려나간 성일군들은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모들을 더 많이 생산할 대책을 세우고있다.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깊이 해설해주어 그들이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성일군들은 도, 시, 군들에서 올해 나무심기계획에 따르는 나무모확보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있다. 자기 단위에서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과 로력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며 그날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할수 있게 작전을 잘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나무심기에 앞서 대상지에 직접 나가 현지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해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담당구역을 정확히 분담하여주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도록 하고있다.

성일군들은 이와 함께 대상지 면적과 경영목적에 맞는 나무모 확보정형을 수종별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있다. 그들은 특히 나무심기가 시작되면 사름률을 높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나무모뜨기와 포장, 운반을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나무모들이 마르지 않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 사름률을 높이지 못한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흙물이나 닥풀우림액 등을 제때에 갖추어놓게 하고있다.

성에서는 도, 시, 군들에서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대상지를 바로 정하며 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줄수 있게 사업을 조직하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많은 시, 군들에서 나무를 심을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있다.

성에서는 지난 시기 산림조성사업에서 앞장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가고있다. 나무심기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찾아내여 알려주고있으며 모든 단위들이 따라 배우도록 하고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주도세밀한 작전으로 나무심기준비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고있는 성일군들의 투쟁으로 하여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의 산과 들은 더욱 푸르러질것이다.

본사기자 윤용호

수억그루의 나무모들을 확보

각지 양묘장들에서

전국각지에서 산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양묘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종이 좋은 수억그루의 나무모를 확보하여 봄철 나무심기기간에 심을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각 도, 시, 군들의 일군들은 산림조성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은 면적에 산림을 조성할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필요한 나무모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었다.

해당 당조직의 지도밑에 각지 양묘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무모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룡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장섰다. 이들은 양묘장을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나무모생산기지로 꾸릴 목표를 세우고 힘찬 전투를 벌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였다.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양묘장이 크게 은을 내게 하기 위해 한그루의 나무모도 랭해를 받지 않도록 온습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갔다.

그리고 삽목과 영양단지를 리용하는 방법으로 나무모생산을 집약적으로 해나갔다. 그리하여 창성이깔나무모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들을 확보해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성시, 만포시, 순천시, 덕천시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회전식분무장치를 리용하여 나무모생산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갔다. 그들은 정성들여 키운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규격화된 포전에 옮기고 비배관리를 짜고들면서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확보해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벽성군산림경영소에서도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생산준비에서 기본은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그들은 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고 소석회와 흙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밭에 실어내고 나무모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였다.

정평, 세포, 동창, 삼천군에서도 나무모생산을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받아들인 앞선 나무모생산방법들이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해 해당 단위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들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나무모관리와 보관을 기술적요구대로 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이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봄철나무심기기간에 심을수 있는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모들이 넉넉히 생산되게 되였다.

지금 각지 양묘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작업도구와 포장용기확보 등 준비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더 큰 덕을 볼수 있게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에서

올해에 농장림을 더 많이 조성할 목표밑에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에서 나무심기준비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 시기 자체의 힘으로 수백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을 조성하여놓고 그 덕을 단단히 본 이곳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산림조성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앞선 나무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잘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고향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농장원들은 뜨거운 애국의 한마음안고 나무모관리에 정성을 바쳐가고있다.

농장에서는 수십만그루의 아카시아나무모와 잣나무, 이깔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모를 확보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

은천군 덕천협동농장에서

은천군 덕천협동농장에서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실지체험을 통하여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 땅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토지를 보호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파악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수십정보의 적지를 선정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한 준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들은 적지들에 질좋은 부식토를 내는것과 함께 나무들을 심기 위한 준비에 품을 들이고있다.

수유나무, 분홍꽃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나무모생산을 다그치면서 닥풀우림액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정주원

봄철나무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대로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면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는 봄철나무심기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나무모의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고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봄철나무심기에서 우선 적기선정을 바로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지방마다 기상기후조건이 차이나며 또 같은 지방에서도 지대적특성에 따라 땅이 녹는 시기가 각이하다. 여기에 맞게 땅녹는 시기를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온도와 습도가 보장되고 땅이 푸실푸실해져 어린나무모의 뿌리발육에 좋은 토양조건이 마련되게 될 때를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밑에 나무심기를 하여야 한다.

나무심기를 할 때 나무모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나무모를 뜨거나 심으면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심은 나무들이 물기를 정상적으로 빨아들이며 잘 자랄수 있다. 뿌리보호를 잘하자면 나무모를 뜬 다음 마르지 않도록 즉시 진흙물이나 닥풀우림액에 뿌리를 담그어야 한다. 그리고 물에 푹 젖은 북데기나 짚, 가랑잎같은것을 일정한 두께로 펴놓은 용기에 나무모단을 뿌리가 안으로 향하게 넣고 포장하여 운반하며 그날 뜬 나무모는 반드시 그날로 심어야 한다. 최근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한 물흡수 및 뿌리보호제를 리용하면 나무모의 사름률과 심은 나무의 생장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나무심기에서 적지적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면 해당 지역의 토양조건에 맞는 수종의 나무들을 골라심어야 한다. 습지대에는 버드나무와 뽀뿌라나무를, 척박한 땅에는 질소고정균을 가진 아카시아나무를, 비옥한 땅에는 수삼나무를 심는것이 좋다.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자면 나무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나무모를 심을 자리를 너비 1m, 길이 1m, 깊이 10㎝정도로 뒤져주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그 중심에 구뎅이를 판다. 구뎅이규격은 나무종류에 맞게 정하고 그것을 팔 때 부식토가 섞인 겉층흙과 속흙을 따로 놓아야 한다. 묻을 때에는 먼저 겉층흙을 구뎅이깊이의 3분의 1정도 되게 넣고 나무모를 세운 다음 그것을 우로 약간씩 들춰주면서 속흙을 넣어 뿌리사이에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다음 잘 밟아주고 주변에 있는 가랑잎이나 돌을 나무주위에 덮어주어 물기가 날아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물과 거름도 주고 풀이나 잡관목같은것을 베여주는 등 가꾸기를 잘하여 어린나무들이 빨리 자라게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성 책임부원 김철

더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기 위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대성구역원림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품을 들인것만큼 열매는 크다

벽동군 권창리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벽동군 권창협동농장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제대군인초급일군들이 믿음직하게 서있다.

그들이 이처럼 농장의 끌끌한 기둥감으로 자라나게 된데는 리당위원회일군들의 노력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제대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들이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몇해전 여러명의 제대군인들이 농장에 배치되여왔을 때였다.

사실 그때 농장에서는 그들이 새 생활을 꾸리게 될 살림집을 한꺼번에 다 지어줄 형편이 못되였다.

하지만 리당비서 김성철동무는 관리위원장 김영식동무와 함께 경치좋은 동천기슭에 제대군인들을 위한 살림집을 번듯하게 짓자고 토의한 후 농장원들을 발동하여 짧은 기간에 문화주택을 일떠세우고 그들의 결혼상도 잘 차려주었다.

리당비서는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그들과 함께 자주 일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애로되는 점도 알아보고 풀어주었으며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답게 대중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고무도 해주었다.

제대군인 박동무가 농사일에 몸을 푹 잠그지 못하고있을 때 그와 여러날 함께 일하면서 그가 남모르게 병을 앓고있다는것을 포착하고 치료대책도 세워주고 보약도 안겨주었다.

병을 고친 박동무는 농사일을 직심스럽게 하였다. 그럴수록 리당비서는 그의 건강도 돌봐주고 농사일도 잘 배워주어 분조장으로 자라나게 하였다.

박동무네 분조는 지난해에 농장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지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의 일군들이 제대군인들을 한명씩 맡아 농사일도 배워주고 농업과학기술지식도 습득시키도록 하였다.

박동무와의 사업을 통하여 리당일군들은 제대군인들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후 리당위원회는 기사장 심남철동무가 책임지고 농장의 기술일군들을 발동하여 제대군인들에게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리당위원회는 제대군인들을 대학과 농업전문학교에도 보내주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도 망라시켜 공부시키였다.

한편 리당비서 김성철동무와 리당부비서 하성철동무들은 제대군인들이 모든 일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 나날에 농장의 초급일군들속에서 제대군인들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다.

제대군인들은 농장에서 조직하는 모든 일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되였다.

그래서 이 농장은 군적으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앞서나가는 단위의 하나로 되게 되였다.

이 단위 일군들처럼 농업부문의 당일군들이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인다면 사회주의농촌진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농업생산에서도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을것이다.

이곳 당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들끓는 포전으로 나간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지름길이 열린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직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직장에는 인재들이 많다.

기술혁신, 창의고안의 명수들, 그들은 평범한 건설자들이지만 기술의 주인, 창조의 능수로 자랐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자들의 창조력을 높여준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골광산 침전지에 미광철판수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때의 일이다.

공사현장까지 물동을 운반해야 할 거리는 백수십리나 되였다. 초보적으로 타산해도 화물자동차로 계획된 물동을 실어나르는데 두달은 실히 걸려야 했다. 운수기재와 연유는 긴장했다.

지름길을 열어야 했다.

이 문제를 놓고 직장의 일군들은 토의를 거듭하였다. 산골짜기를 꿰지르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거리를 훨씬 단축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것이 가능한지, 과연 실리가 있겠는지.

과학적인 타산이 없이 선뜻 용단을 내릴 일이 아니였다. 련합기업소의 일부 기술자들도 머리를 기웃거렸던것이다.

(건설자들의 열의를 발동하는데 방도가 있다.)

초급당비서 구명석동무가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일부 건설자들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런 방법으로 해낼수 있을가? 기술자들도 자신심이 없어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물동을 하나라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편이 낫겠다.

—우리야 건설자집단인데 과업을 받은대로 하면 그만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였다.

똑심으로라도 물동을 날라 공사기일을 보장하자는 심사였다.

탓할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초급당비서는 그것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기술혁신을 대하는 관점이 옳바로 서지 못한 문제를 당정책결사관철의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문제로 보았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보니 누구보다도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 공사속도의 지름길이 기술혁신에 있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면서도 단위의 특성을 앞세우며 그 실천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이끌지 못했던것이다.

사실 이 직장이나 련합기업소는 다른 공장, 기업소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사업상특성을 가지고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대부분 집을 떠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을 전문으로 하고있다. 이런 조건때문에 지난 시기 일부 건설자들은 기술혁신을 별개의 사업으로 여기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뛰여들지 못하고있었다. 반드시 극복되여야 했다. 더우기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던 당시의 실정에서 이 사업은 직장의 장래운명과도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누구나 창의고안의 명수, 기술혁신의 주인공들로 만들자.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름길이 바로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자!)

초급당비서의 결심이였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을 대하는 건설자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본 초급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그 하나가 실천을 통해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그 실현에 대한 신심을 새겨주는것이였다.

우선 건설자들의 창조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부터 펼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모여앉아 력학적으로 따져보고 건설자들의 풍부한 경험도 들었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물매가 급하고 거리가 수백m나 되는 산비탈조건에서도 현재 가지고있는 권양기를 설치, 리용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물동을 안전하게 올릴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권양기설치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안들을 내놓도록 이끌었다. 여러 안들가운데서 미끄럼식으로 물동을 끌어올리자는 착상이 일군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 안을 받아들여 권양기를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을 적극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물동을 전부 끌어올릴수 있었다.

—보라, 우리 건설자들이라고 왜 과학기술룡마를 탈수 없겠는가. 결심하고 달라붙으니 어려운 기술적문제들도 풀리지 않는가. 문제는 누구나 기술의 주인이 되겠다는 투철한 사상과 각오를 가지는데 있다!

초급당비서의 말은 그대로 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그저 똑심으로만 맡겨진 일감을 해제끼려고 하던 일부 건설자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초급당위원회는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폭발시켜 미광철판수채를 빠른 속도로 설치하도록 이끌었다.

기적이 창조되였다. 남들이 6개월이 걸려도 해내기 힘들다고 하던 미광철판수채를 훨씬 앞당겨 설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던것이다. 공사과정에 새 공법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만해도 7건이나 도입되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때처럼 깊이 절감해본적은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여야 직장의 진짜주인이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절감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술혁신, 창의고안의 명수가 되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섰답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직장장 리진규동무가 한 말이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대하는 건설자들의 관점이 새로와진데 맞게 초급당위원회는 그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주는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늘 외지에서 살며 일하는 건설자들의 실정에 맞게 초급당위원회는 전투현장에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배운 내용을 실천투쟁속에서 공고히 하면서 새것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몇해전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건설에 참가하여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던 때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페열보이라건설과 관련하여 십여t이나 되는 중량물을 수십m의 높이에 끌어올리는 전투가 벌어질 때 건설자들은 배운 기술지식에 기초하여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면서 일판을 내밀었다.

박정환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토론과 론쟁을 거듭하며 새로운 공법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중량물을 기계수단의 도움이 없이도 안전하게 자기 위치에 올려놓을수 있었다.

이런 실례는 허다하다.

갈탄가스화공사장에서만도 직장의 건설자들은 수많은 앞선 공법과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과정에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창조와 혁신의 나날 기술자, 기능공대렬이 부쩍 늘어났다. 두명의 영웅이 배출되였고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가 나온것을 비롯하여 직장의 자랑이 많다.

실천을 통해 기술혁신이자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긴 직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술혁명결의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전투장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의 사상과 정신의 요구대로 사상공세를 더욱 드세차게 들이대고있다.

본사기자

로농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

선전선동공세를 더욱 드세차게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막장들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당원들과 탄부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8갱 채탄5중대 막장에 들어간 초급당일군은 탄부들과 함께 일하다가 작업의 쉴참에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자고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에 호응하여 탄부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그날 석탄생산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화선식선동은 탄광의 당원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게 하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 *

명간군 립석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이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선동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지난해 분조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성과를 거둔 제4작업반 1분조 선동원 유금숙동무의 선동활동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그들이 신심을 가지고 선동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리당일군들은 선동사업수준이 높지 못한 선동원들을 담당하여 도와주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선동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의 요구대로 대중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김화광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인 강원도도매상업관리처 과장 장덕호동무

《귀가 번쩍 열리는 강연》, 《들을수록 참신한 강연》!

강원도도매상업관리처 과장 장덕호동무의 강연을 듣고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도그럴것이 사람들의 특성과 준비정도, 심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진행하는 그의 강연실효가 매우 크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장덕호동무는 늘 사색을 깊이 하며 강연선전활동을 창조적으로 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청강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강연의 실효를 높이고 그 단위의 사업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겠는가.

그의 뇌리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떠날줄 모른다.

지나간 일이지만 장덕호동무의 강연이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리지 못한적도 있었다.

당초급선전일군으로 갓 임명되였을 때 고산군 란정리에서 진행한 그의 강연이 바로 그랬다.

그때 장덕호동무는 가을걷이를 와닥닥 끝내자는 내용으로 강연선전을 진행하였다. 제딴에는 속담도 섞어가며 청높은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다. 했으나 강연이 끝났을 때 농장원들의 얼굴표정에서는 크게 달라진것이 없었다.

그날 그는 농장원들과 교감이 잘되지 못한 원인을 명백히 찾았다. 농장원들의 심리를 잘 몰랐던것이다. 사전료해나 현실체험이 없이 그저 련발사격을 하듯하였으니 그들의 감흥이 컸을리 만무하였다.

교훈을 찾은 그는 대중의 심리에 맞는 강연선전의 묘술을 찾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그 과정에 사람들의 심리를 꿰들자면 우선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자신을 헌신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농장에 가면 농장원이 되였고 공장에 가면 기대공이 되였으며 건설장에 나서면 건설자가 되였다.

원산시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해의 그의 강연선전활동이 좋은 실례로 된다.

동상주변을 꾸리는데 동원된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장덕호동무는 자진하여 야간돌격대에 나갔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강연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한번의 강연을 해도 사람들의 심리상태부터 파악하고 대중앞에 나서는데 습관된 장덕호동무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헌신의 땀부터 진하게 흘렸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불타는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열의는 높았다.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속에는 가정부인들과 처녀들도 있었는데 야간작업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내색을 하지 않고 남자들 못지 않게 한몫씩 해제끼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목격한 장덕호동무의 감흥은 대단히 컸다.

이런 체험과정에 돌격대원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였다.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였다. 불타는 애국충정을 지닌 돌격대원들의 심리를 강연자료와 결부시킨것은 큰 실효를 안아왔다.

목표를 정확히 찌른 그의 강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무섭게 폭발시킨 도화선으로 되였다. 그가 진행한 여러차례의 강연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방대한 전투과제를 기한전에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그는 강연을 하기 전에 현실체험과 단위의 실태료해만은 놓치지 않고있다.

원산군민발전소 물길굴건설장에서 강연을 진행할 때의 일이다.

도당위원회 사업계획에 따라 집중강연선전대가 조직되였는데 거기에 망라된 장덕호동무는 강연의 성과를 위한 사전준비를 다그쳤다.

그때 그가 제일 안타까와한것은 기간이 짧은것이였다. 며칠동안에 물길굴건설장을 순회하며 강연을 끝내야 했다. 그런것으로 하여 건설현장을 돌아볼 시간적여유도 없을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탓하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울것이 아니라 시간보다 앞서달리리라고 결심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자 그는 저녁무렵이라는것도 잊고 곧장 갱막장으로 향하였다. 석수가 쏟아지는 막장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갱확장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 장덕호동무는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알게 되였고 그들과 친숙해지기도 했다.

이튿날 진행한 강연선전의 실효는 매우 컸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밤잠을 잊고 불같이 헌신한 보람이 있어 그는 계획된 단위들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실효성있는 강연을 할수 있었다.

물론 그가 갱에 들어가 일을 하지 않고 강연선전활동을 진행한다고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달리는 살수 없는 장덕호동무였다. 그렇게 진행된 그의 강연이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울린 위력한 선전으로 되였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실례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의 강연이 매번 사람들의 절찬을 받게 되는것은 청강자들의 심리에 맞게 론리적이고 설득력있게 강연이 진행되기때문이다.

강연선전활동을 벌리는 나날 장덕호동무는 실력이 있어야 대중과 교감이 되고 가까와진다는것을 알고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강연선전활동을 기백있게 진행하고있다.

지난 16년동안 그는 도안의 95만여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연선전을 천수백회나 진행하였으며 당정책결사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안의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포전강연선전활동을 벌렸으며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중요전투단위들에서도 화선식강연선전을 진행하였다.

그때마다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진행한 장덕호동무의 강연은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군 하였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강연선전활동을 정열적으로 벌려왔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연설에 접한 그의 심장은 무한히 격동되여있으며 보다 큰 보폭을 짚으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전 경 서

자질향상과 밀접히 결합시켜

신의주경공업대학 교원, 연구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과학연구기관이며 대학교원은 교육자이면서 과학자로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 관철에 떨쳐나선 신의주경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자질향상을 연구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교수교양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대학교원은 교육자이면서 과학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연구과제수행에서 찾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최근년간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에게 연구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 수행과정이 그대로 자질향상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연구과제수행에 학생들을 적극 인입시켜 그들이 실천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과 함께 응용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 나날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화학강좌장 김광림동무와 강좌의 교원들은 열복사능이 좋은 새 재료를 연구개발하고 신의주시의 수천세대의 주민용땔감불통에 도입일반화한 성과로 하여 제2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강좌에서는 저열탄과 감탕에 연소첨가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땔감문제해결의 좋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학에서는 화학강좌 교원들의 연구사업에 학생들을 인입시켜 그들이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아 연구사업과 성과도입사업이 빠른 시일에 은이 나게 하였다.

연구사 황명호동무가 종이감류출농도수감장치를 연구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수십건의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도입일반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최근 몇해동안에 학위학직소유자와 10월8일모범교수자대렬이 훨씬 늘어난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교원, 연구사들의 높은 자질은 그대로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이어졌다.

기계공학부 설계기초강좌의 김호영, 최성철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전국대학생들의 기계부문설계경연에서 해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대학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학장 오정희, 부학장 리정길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은 올해 교원, 연구사들이 연구사업과 자질향상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그에 맞게 대학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구사업과 자질향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교원, 연구사들의 긍정적모범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액체배양법에 의한 령지버섯생산에 대한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나선 연구사 박원근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모든 교원, 연구사들은 지금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피현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한 참된 애국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과 내용, 그를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독보와 해설담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일군들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올해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원 화

공화국공민으로서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청년대학생들 본사기자 찍음

마식령지구에 차넘친 원군열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불심량면으로 원호하며 한전호에서 싸워왔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이 지난해 마식령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성의로 적극 원호하였다.

중구역 동흥동에 살고있는 김동기동지를 비롯한 3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차디찬 남녘땅에서 인생의 고목으로 시들어가던 자기들을 따뜻한 조국의 품에 안아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주고 걸음걸음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을 안고 가정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 건설장을 찾아가 혁명적인 노래도 불러주면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기계공업성 강원도기계직매점 로동자 리명룡동무와 그의 가정에서도 마식령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는 좋은 기풍을 발휘하였다.

그의 가정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헌신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건설장에 많은 원호물자를 안고 찾아가 자기들이 준비한 시도 읊고 노래도 부르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송도원유원지 사회급양관리소 아래단위 로동자 함기숙동무는 마식령스키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싶다고 하면서 원군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남포시무역관리국 아래단위 로동자 차광혁동무와 그의 안해는 군사임무수행중 전사한 자기 아들을 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아들의 몫까지 다하여 보답할 충정을 안고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강원도림업관리국 후방물자공급소 로동자 정길옥동무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나가시는 원수님의 은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원호물자를 안고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면서 군민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일군인 림명숙, 로동자 박경숙동무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였다.

사동구역상업관리소 로동자 리현미, 체육성 축구련맹 아래단위 로동자 강영근, 혜산의학대학 실장 엄영희, 교원 허광, 혜산시제1인민병원 의사 리윤일동무들은 원군의 길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마식령스키장 군인건설자들을 찾았으며 중앙출판물보급사에서 일하는 김화실, 사리원체육대학 교원 김봉화동무들도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원산시 신풍동에서 사는 강명우 전쟁로병도 전화의 나날에 발휘했던 투쟁정신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일 일념을 안고 원군의 길에 자기의 지성을 바치였다.

이밖에도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아래단위 일군인 손철호, 인민봉사총국 아래단위 로동자 리혜련동무들도 세계적수준의 마식령스키장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간다

보석같은 마음을 안고사는 로당원들

흔히 사람들은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석에 비기군 한다. 입당할 때의 그 맹세를 지켜 생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는 우리의 로당원들의 소행을 두고 바로 그렇게 말할수 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여가는 길에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던 그때처럼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는 우리 로당원들이야말로 보석같은 마음을 지닌 참된 애국자들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치며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커다란 환희와 격동속에 받아안은 그날이였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자자구구 새기는 로당원들속에는 강서구역 삼묘리에서 살고있는 류병준로인도 있었다.

(이런 일에서야 당원들이 응당 앞장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나 우리 원수님께서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류병준로인에게는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생산하여 나라의 쌀독에 채워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밤잠도 잊고 새끼를 꼬고 중소농기구도 부지런히 마련하였다.

동네사람들은 그가 언제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누구도 몰랐다.

더구나 그의 가슴속에 어떤 지향이 간직되여있는지 더욱 몰랐다.

그의 집에 들렸다가 하루밤사이에 생겨난 여러가지 소농기구들과 새끼통구리를 보고는 사람들마다 《어제밤도 꼬박 밝힌 모양이구만.》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군 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그는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쳤다.

하루는 농장의 한 일군이 찾아와 나이도 많은데 이제는 몸을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다고 당원의 본분까지 잊고살면 안되지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농사에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게 없수다.》라고 하면서 더욱 억척스레 새끼를 꼬아나가는것이였다.

한m, 또 한m…

일에 지쳤다가도 그는 가득히 쌓인 새끼통구리들을 바라볼 때면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뜨거운것으로 가슴이 뿌듯해짐을 금치 못하며 더욱 힘을 내군 하였다.

얼마전 류병준로인은 밤을 새워가며 품을 들여 꼰 수만m의 새끼와 수십점의 중소농기구를 자기가 일하던 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그는 이렇게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많은 중소농기구와 영농물자들을 마련하고 주요영농공정때마다 협동농장의 농사일을 적극 도와나선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나도 당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류병준로인의 소행을 두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농장일군들과 마을사람들에게 그가 흔연히 한 말이였다.

류병준로인만이 아니였다.

강서구역안의 600여명의 로당원들과 룡강군안의 460여명의 로당원들을 비롯하여 남포시에서만도 1 600여명의 로당원들이 나라의 알곡생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련한 거름과 중소농기구와 많은 영농물자들을 새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농장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사람들속에는 황해남도안의 860여명의 로당원들과 강남군안의 300여명의 로당원들도 있다.

재령군 청천리에서 사는 10여명의 로당원들은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섰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고 하면서 청천협동농장의 포전에 지난 1월 2일부터 매일 2t이상의 거름을 낸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로당원들이 자기들의 애국의 마음이 담긴 많은 거름과 중소농기구와 영농물자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농업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 길에 이 한몸 깡그리 바치리라.

이것은 평범한 나날에나 준엄한 나날에나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넘으며 오직 당과 수령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우리 로당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의 마음이며 신념이다.

본사기자 홍 성 철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준 힘있는 지원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직동석고광산 중대장 김희룡동무는 지난해 맡은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힘있는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평안남도인민보안국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인 김광혁, 리선일, 최윤철동무들은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이바지할 열의드높이 수많은 식료품과 륜전기재부속품들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신의주상하수도사업소 로동자 김천룡동무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김천룡동무는 지난 기간 아들과 함께 만수대언덕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충정을 바치였으며 영예군인의 생활도 잘 도와주는것과 함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지성을 다하였다.

그는 당의 크나큰 은정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가슴을 불태우며 지난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휴대용콤퓨터와 타일 수십㎡, 륜전기재부속품들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중구역련하첨단기술도입소 로동자 백원일동무는 《마식령속도》에 화답하며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의 심장의 박동에 보폭을 맞추며 지난해 6월 풀판조성에 필요한 수백m의 비닐관과 많은 식료품을 건설장에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자기 가정에 돌려준 당의 사랑과 배려를 심장에 새기고 지난 기간 원군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북창군 룡흥로동자구에 사는 조영희녀성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적으나마 기여할 마음안고 정성들여 마련한 지원물자를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인민봉사총국 아래단위 장혜경,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연구사 오남주동무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모란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전은주, 평양시양어관리국 양어기술준비소 최향미, 안주시 청천강2동에 사는 차영순, 라진음료공장 부원 주혜성, 평양시식료농산물상업관리소 로동자 변혁동무를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성심성의로 마련한 지원물자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애국적소행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신 현 규

뜨거운 지성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찾아 **인민봉사총국안의 책임일군들과 옥류관의 종업원들이** 지원물자와 함께 축하의 노래를 안고왔다.

이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시작된 첫날부터 돌격대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건설장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왔다.

최근에만도 인민봉사총국안의 일군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수십t의 집짐승배설물과 풀판조성에 필요한 영양가높은 먹이풀씨들도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을 보다 큰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이라고 하시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오늘도 여러가지 작업공구들과 자기들의 지성이 어린 후방물자들, 품을 들여 준비한 노래들을 안고 돌격대원들을 찾아와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그들의 성의가 깃든 물자와 공연을 보면서 돌격대원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은산군 령대로동자구에서 살고있는 최선화동무는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지난 20여년간 실천적모범으로 인민반원들을 당정책관철과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왔다.

그는 언제나 인민반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것으로 하여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해마다 금수산태양궁전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그는 지난해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남먼저 현장에 달려나가 주민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는 인민반원들과 함께 철길과 도로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탄부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 탄부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전쟁로병 함광호로인과 영예군인 한진미동무와 한식솔처럼 어울리면서 이들이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있다.

또한 그는 남편 심정민동무와 함께 가정에서 많은 돼지를 길러 인민군대원호사업과 탄광에 대한 지원사업도 성의껏 하는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이란을 방문하였던 외무성대표단 귀국

이란을 방문하였던 리길성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메아리사격관이 문을 열었다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이 봉사를 시작하였다.

청춘거리의 풍치수려한 야산의 자연환경과 시대적미감에 어울리게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사격관은 여러 사격장과 활쏘기장, 전자유희오락시설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이다.

지난 2월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문을 연 사격관으로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희열과 랑만속에 사격의 멋을 한껏 향유하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더욱 스며들고있는 새시대의 문명을 전하며 행복의 메아리, 기쁨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리고있는 메아리사격관은 어머니당이 마련해준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재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청춘거리에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오붓이 들어앉은 메아리사격관은 1일 봉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곳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감격의 그날 이곳을 찾으시여 사격관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음성이 들리는듯 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사람들이 사격에 취미를 붙일수 있게 목표판도 커지고 사격장의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계단식으로 고쳐지고 복도에는 휴식에 편리하게 긴의자들이 놓여진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을 가슴후덥게 새기고있다.

광선총사격장에서 대형현시기에 나타나는 토끼와 사슴, 메돼지를 보는족족 쏘아맞히며 으쓱하여 환성을 올리는 학생소년들, 전자권총사격장에서 실탄사격과 같은 느낌을 맛보는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점수판에 새겨지는 자기의 우수한 점수를 보며 이름할수 없는 명중의 쾌감에 잠겨 손에서 총을 놓지 못하는 청년들로 하여 50m보총사격장과 25m권총사격장의 수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높아갔다.

30m실내활쏘기장에서 활쏘기묘리를 빨리도 터득하고 그옛날 상무기풍으로 강대했던 고구려의 무사들마냥 멋들어진 자세로 련속 활을 날리는 청소년들의 사기 또한 충천하였다.

실내사격장건물뒤에 꾸려진 야외사격장에서는 이채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꿩, 닭, 고무풍선 등 이동목표가 명중될 때마다 터져오르는 박수소리, 쏘아맞힌 동물들을 그대로 구럭에 넣어 안겨주는 봉사원들과 기쁨속에 담소하는 근로자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사격지식을 배우려는 탐구심과 열의가 넘쳐나는 사격교육실,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샤와실, 야외체육장, 야외식사터 등도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끝없이 울리는 총성과 함께 정신육체적으로 단련하며 활력에 넘쳐 하루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만경대구역 당상2동 95인민반 최학수는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만복을 누리는 꿈같은 현실을 이 땅우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승마도 좋지만 사격에 대한 애착 또한 더없이 강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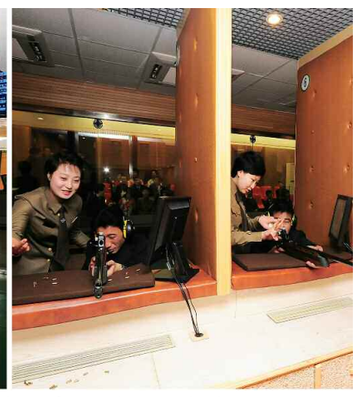
하루빨리 사격의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싶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희한한 사격관에서 가슴후련히 사격을 하고나니 더욱더 휘황찬란할 조국의 래일, 문명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일을 할 결심이 굳세여진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전용뻐스들도 운영하게 되였다니 앞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주 오겠다.

전자권총사격에서 련이어 10점을 맞은 평천구역 륙교소학교 학생 리진성은 총쏘기가 너무도 재미있어 시간가는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서빨리 인민군대가 되여 우리 나라를 탐내는 원쑤들을 단방에 쏘아잡는 일당백명사수가 되겠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 기쁨의 웃음소리가 행복의 메아리되여 끝없이 울리는 수도의 문화정서생활기지, 메아리사격관은 온 나라 인민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다.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수도의 근로자들
—메아리사격관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불타는 충정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을 낳습니다.》

전국각지의 독자들이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과 충정의 맹세를 담은 글작품들을 본사편집국으로 계속 보내여오고있다.

한편한편의 그 소박한 글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온 나라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조선인민군 군관 리원호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은 여러편의 글작품들을 창작하여 보내여왔다.

그중의 한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다정한 그 음성에 《사향가》 들려오고
자애로운 그 미소에 태양의 모습 어려오네
주체의 홰불높이 새시대를 펼치시는
원수님 높이 모신 이 영광 끝이 없네
…

또한 가사 《마식령에 눈이 내리네》, 《심장에 물어보라》, 《은혜로운 당이여》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인민사랑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원수님을 받들어 가는 길에 충정을 다해갈 불타는 맹세, 은혜로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고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
원수님 그 손길 바다를 가리키시면
사랑의 《단풍》호 동해를 주름잡아
승리의 만선기 휘날리며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네

아 원수님 그 손길 우러릅니다
군민은 그 손길 따라섭니다
…

이것은 중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교원 리창국동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언제나 충직하게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창작한 가사 《군민은 그 손길 따라섭니다》의 한 구절이다.

그가 창작하여 보내온 가사 《만복화 그 이름 길이 빛나라》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철원군에 사는 최경철동무도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갈 의지를 담은 작품을 보내여왔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의 메아리가 차넘치는 글작품들이다.

어버이장군님의 환하신 태양의 모습을 가슴속에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군길에는 언제나 밝은 앞날만 있을것이다.

조 향 미

최첨단을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도서관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도서관을 찾았다.

한층한층 계단을 밟으며 도서관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몇해전 몸소 대학에 찾아오시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뜨겁게 안겨왔다.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정보봉사는 물론 국내외학술교류도 진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기술보급기지, 의학과학정보봉사기지로 꾸려진 도서관의 이 자랑찬 현실을 우리 장군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절로 숭엄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도서관의 중앙홀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은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가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었다.

우리와 만난 관장 최례근동무는 도서관이 새로 일떠서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주체99(2010)년 11월 몸소 대학을 찾아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대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현대적인 도서관을 꾸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건설력량과 자재, 설비보장대책을 세워주시고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영광의 그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관장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어 우리는 실장 김지용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자열람실과 다매체열람실, 원격강의실, 학술교류실 등을 돌아보았다.

먼저 우리가 들린 곳은 전자열람실이였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히 놓여있는 열람실은 조용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은정어린 설비들을 리용하는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최첨단을 향해 돌진하는 탐구의 열정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었다.

옆에 누가 다가서는줄도 모르고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한 대학생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그는 림상제2의학부에서 공부하고있는 권충일동무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빠른 기간내에 더 많이 습득할 자신만만한 열의가 그의 눈빛에 어려있었다. 콤퓨터화면에 흐르는 다매체편집물과 책상우에 놓인 여러권의 참고도서들이 그의 탐구심을 다 말해주고있었다.

그 미더운 모습을 바라보며 김지용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 소문난 독학가입니다. 최첨단의학과학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가는 수많은 독학가들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훌륭한 도서관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은정을 천년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절세위인의 사랑속에 마련된 이런 훌륭한 도서관이 있어 우리 교직원, 학생들은 교육과 과학연구사업, 학습에서 비약의 나래를 더 활짝 펼수 있게 되였습니다.》

대학에 수십차에 걸쳐 보내주신 귀중한 과학기술도서들이며 값비싼 첨단설비들에도, 다매체열람실과 원격강의실, 학술교류실에도 절세위인의 뜨거운 은정이 가슴뜨겁게 새겨져있었다.

도서관은 그야말로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최첨단을 돌파할수 있게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자료봉사기지였다. 이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어찌 충정의 마음이 따르지 않으랴.

교직원, 학생들모두가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었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뜻이 어린 사랑의 집, 배움의 집에서 마음껏 최첨단을 향해 나래를 펼쳐가는 교직원,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머지않은 앞날에 교육과 과학연구사업, 학과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옥별

올해에 예견되는 농업기상조건

올해의 첫 《농작물생육예보》가 나왔다.

농작물생육예보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상수문국과 농업과학원의 관록있는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망라된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에서 10일간격으로 발표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생육예보》 제1호에서는 올해에 예견되는 농업기상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대책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지난 겨울에 우리 나라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현저히 높았다. 그것은 동아시아부근에서 대기의 서동흐름이 강화되면서 북쪽의 찬공기가 우리 나라쪽으로 세력을 크게 확장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올해 봄철(3-5월)에는 동아시아부근의 서동대기순환상태가 일정하게 지속될것으로 보이나 북서쪽에서 흘러드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도 자주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봄철은 평년보다 약간 앞당겨 시작되지만 늦은봄에 저온현상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가물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평년(8.4℃)보다 약간 낮을것으로 예견된다. 3월에는 평년(1.6℃)정도이고 4월과 5월에는 평년(각각 9℃, 14.6℃)보다 약간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강수량은 평년(149.7㎜)의 80~90%로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3월과 4월에는 평년(각각 23.8㎜, 47.9㎜)정도, 5월에는 평년(78㎜)의 80%정도로 적을것으로 보고있다.

해비침률은 평년(52.7%)보다 약간 높을것으로 예견된다.

여름철(6-8월)과 가을철(9-11월)에는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여름철평균기온은 평년(21.3℃)보다 약간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6월과 8월에는 평년(각각 19.1℃, 22.7℃)보다 0.5℃정도 낮고 7월에는 평년(22.2℃)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을것으로 예견된다.

강수량은 평년(557.7㎜)의 120%정도로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6월과 8월에는 평년(각각 105㎜, 207.8㎜)보다 110~140%로 많고 7월에는 평년(244.9㎜)정도일것으로 보고있다.

해비침률은 평년(38.8%)보다 낮을것으로 예견된다.

가을철평균기온은 평년(10.1℃)보다 약간 낮고 강수량은 평년(180.3㎜)보다 약간 많으며 해비침률은 평년(54.3%)보다 약간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올해에 예견되는 재해성기상현상은 다음과 같다.

봄철저온 및 가물현상이 나타날것이 예견된다. 지난해에는 3월과 4월에 저온현상이 있었고 5월초부터 기온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4월과 5월에 저온현상이 나타나고 5월에 서해안의 일부 지방들에서 가물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예견된다.

여름철에는 지난해와 류사하게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8월에 많이 내릴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에는 서해안북부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올해에는 서해안중부와 남부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견된다.

랭한현상도 예견된다. 지난해에는 5월 중순-6월 상순에 동해안북부지방에서 랭한현상이 있었고 그후에는 고온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에는 여름철에 동해안지방에서 평균기온과 해비침률이 평년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랭한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예견된다.

해비침률이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최근년간에 해비침률은 평년보다 낮았다.

올해에도 여름철과 가을철에 해비침률이 평년보다 낮을것으로 예견되는데 가장 낮은 기간은 7월과 8월로 보고있다.

올해에 태풍발생구역에서 태풍의 발생회수는 평년보다 약간 적겠으나 우리 나라주변의 바다물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태풍이 우리 나라쪽으로 자주 올라올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견된다.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대하여 잘 알고 미리부터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것이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옷차림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하자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대에 어울리게 다양하게 하면서도 건전하고 고상하게, 민족적정서가 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옷차림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며 단정한 외모는 인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정서와 풍치를 돋구어준다.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옷차림을 잘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꽃피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는 나날이 더욱 문명해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옷차림을 고상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우리 식으로 단정하게 해야 한다.

옷차림을 잘하자면 겉옷을 계절과 나이, 장소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로 선택하여 다양하게 해야 한다.

계절에 따라 조선옷, 양복, 샤쯔, 달린옷 등을 자기의 몸매에 맞게 선택하여 입을수 있으며 옷색갈도 밝고 부드러운 계통의 색갈을 자기 얼굴색에 맞는것으로 골라입는것이 좋다.

어린이들의 옷차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 환하고 발랄한 형태와 색, 무늬, 장식 등으로 된 옷을 입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옷차림풍습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조선치마저고리는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우수한 민족옷으로서 녀성들 누구나가 사계절 다 입을수 있으며 저고리와 치마의 안정된 비례감으로 하여 입으면 세련되여보이고 아름다우며 민족적인 정서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옷차림을 잘하자면 옷을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것을 습성화해야 한다.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어야 하며 단추를 채우고 구김이 없어야 한다. 옷에서 깃, 소매기슭, 허리부위, 바지나 치마기슭부위가 언제나 반듯하고 깨끗해야 한다.

옷차림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정서에 맞지 않는 이색적인것을 철저히 배격하는것이다.

무늬가 얼럭덜럭하거나 조선사람의 미감에 맞지 않는 요란한 장식이 있는 옷, 품이 너무 좁은 옷 등은 우리 식이 아니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적인 정서를 적극 살리면서 건전하고 소박하며 아름답게 옷차림을 잘하여 온 사회에 문명한 사회주의생활문화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피복학부 학부장 박 철

지능발전에 좋은 바둑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해온 바둑은 사람들의 지능발전에 아주 좋은 민족체육종목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속놀이는 그 가지수가 많고 다양할뿐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어 우리 인민이 즐겨하는 오락입니다.》

바둑은 다른 민속놀이에 비해 독특한 재미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지능발전에서 특이한 효과를 나타낸다.

기재와 규칙이 간단하지만 그 수가 무한히 많고 흥미진진하며 모든 수법들이 수자와 관련되여있기때문에 인간의 수학적재능을 키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형을 하나 보아도 공간적으로 투시하는 능력이 비상히 높다.

바둑은 사람들의 탐구심과 창조력을 키워준다.

바둑을 두면 한수한수를 깊이 생각하여 쓰게 되므로 진지한 연구태도와 사색하는 습관이 저절로 붙게 된다. 또한 바둑의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으므로 새로운 수, 보다 좋은 수, 좋은 형태와 모양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며 얽힌 모양에서 매듭을 찾으려고 자기 식대로 부단히 탐구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높은 창조적능력을 갖추게 된다. 바둑은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력과 론리적인식능력을 높여주고 두뇌단련과 정신수양에 큰 도움을 준다.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의 돌을 잡고 자기의 돌을 살리면서 집을 만들고 또 상대방의 집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 수를 쓰기때문에 돌들의 복잡한 놓임새를 놓고 형세판단을 해나가는 과정에 사물현상을 넓게 보는 능력이 형성되며 바둑 그자체가 두뇌운동이므로 마음가짐이 건전해지게 된다.

또한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속에서 돌처리를 하면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과정에 복잡한 일들을 조절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몸과 마음, 사업능력의 조화를 맞추게 된다.

인간의 기억력은 《지능의 창고》, 관찰력은 《지능의 문》, 사고력은 《지능의 핵》, 상상력은 《지능의 날개》라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바둑에 담겨져있다. 특히 학령전나이에 바둑을 배우면 지능계발속도가 빨라져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며 나이든 사람이 바둑을 하면 정신적로쇠를 막고 사업과 생활에서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평양바둑원 원장 윤용명

발명소식

전방향어군탐지기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수산과학정보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전방향어군탐지기를 발명하여 내놓았다.

종전의 어군탐지기는 수자론리식요소로 구성되여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명하여 내놓은 전방향어군탐지기는 한 소편처리소자를 리용하여 조종 및 결합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우점은 탐색자료에 대한 처리를 콤퓨터로 실현하여 물고기떼의 위치와 이동방향, 크기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얻을수 있는것이다.

또한 어군탐색자료를 분석처리하는 탐지프로그람에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하기가 편리하며 변화되는 어황조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어군탐지기의 표시장치와 수자처리장치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한소편콤퓨터 등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피가 작고 동작속도가 빠르며 표시분해능이 높은것이다.

기포부재생산용교반기

평양인쇄공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현장조건에서 리용할수 있는 기포부재생산용교반기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기포부재생산용교반기는 거품발생량이 적어 부재의 세기가 떨어지거나 피대바퀴에서 생기는 미끄럼현상으로 인한 축파피 등 이전의 교반기에서 나타나던 결함들을 극복하였다.

새롭게 제작한 기포부재생산용교반기는 본체, 전동기, 기포형성장치, 교반장치로 구성되여있다.

높이 150㎜, 길이 400㎜, 두께 1㎜의 철판으로 만든 기포형성날개는 타래선모양처럼 감아서 기포형성날개축에 용접고정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교반날개는 기포가 터지지 않으면서도 틀음모멘트가 작게 걸리도록 곡선으로 선정하였다.

건설장조건에서도 원가를 적게 들여 제작할수 있는 기포부재생산용교반기는 쓰기 편리하고 조작이 간단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사자봉체육단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선거분위기로 들끓게

평원군 원화리당위원회에서는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을 맞으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안고 선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일군들은 선거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행운,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적극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정권의 공고발전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도 강연, 해설담화, 구호해설 등의 형식으로 활발히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우일

* *

문덕군 어룡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우리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리당일군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으며 선거날에는 여러곳에 마련된 선거장들에서 불편없이 선거에 참가하고있다는 내용을 자본주의나라들의 반인민적선거제도와 결부하여 해설해주고있다.

리당일군들의 해설을 들으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그들은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를 안고 선거에 참가할 한마음으로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차재윤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희세의 정치원로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각각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대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대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캄보쟈의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대왕후》라고 씌여져있었다.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대형꽃바구니들을 왕궁담당부수상 콩 쌈올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 정부 왕궁성대표단이 2월 17일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진정하였다.

대표단 단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그이께서 건강하실것과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바라는 국왕과 대왕후의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경축집회, 토론회 진행

광명성절경축집회가 꾸바, 파키스탄, 벌가리아에서 2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였다.

집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집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집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총대를 사랑하시였으며 총대로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성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과 함께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석의 사업을 적극 보좌하시였다. 그이는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세계정치원로,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심혈을 바치신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파키스탄 카라치 알리 알리학교 교장은 김정일동지는 풍모와 자질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이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벌가리아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대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또한 조선통일운동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파키스탄,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파키스탄, 몽골, 우크라이나에서 2월 6일과 14일에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 자베드 안싸리, 아와미민족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 바쉬르잔, 카라치주체연구쎈터 위원장 굴람 라바니를 비롯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령도자로서의 뛰여난 품격과 자질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여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가, 강철의 령장, 인류의 대성인,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 그이의 애국적인 열정,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몽골평화친선기구 사무국장 요. 막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신것은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공적이다.

주체,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사회주의체제를 변함없이 강화하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도리사회 성원 느. 사란토야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였으며 조선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다.

우크라이나 크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루씬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한 선군사상의 심화발전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해 선군사상의 창시와 본질적내용과 결부하여 토론하였다.

몽골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시회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시회가 2월 6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먄마, 기네,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인도네시아 보고르농업대학 크라까타우식물연구소 소장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연구소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게 된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상징인 김일성화가 태여난 보고르시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전시회를 통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에 대해 잘 알게 될것이다.

먄마 양곤시개발위원회 사회관계 및 공보총국 총국장은 김정일각하는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집행위원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은각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조선인민의 행복한 모습에서 보다 휘황찬란할 조선의 래일을 그려보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시회를 앞으로 더 자주 조직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는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조선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여러 나라 신문 특집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메디아》 2월 17일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게재하였다.

신문은 김정일각하와 같이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력을 지니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김정일각하께서는 탁월한 령도력으로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그이의 업적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공세를 짓부시고 조선의 사회주의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이 구현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2월 18일부는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김정일각하께서는 겹쌓인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이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령도자를 인민들이 어찌 진심으로 받들고 열화와 같이 흠모하지 않겠는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그이의 거룩한 영상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가장 소중히,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말리신문 《러 말리앵》 2월 17일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령도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분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덕정치로 조선땅에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놓으시였다.

생활체험을 통하여 김정일령도자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고매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조선인민의 가슴속에는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이 가득차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불레찐 발행

광명성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에서 2월 9일 불레찐 《김정일애국주의》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김정일령도자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것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고 강성국가로 우뚝 올려세우기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지난 세기 말엽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 그이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지금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누구나 참된 애국의 길을 걷게 하는 고귀한 정신적유산으로 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기념비적창조물들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보도

우리 인민에게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손길아래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일떠선데 이어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수많이 건설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완공된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류경원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다. 그옆에 위치하고있는 인민야외빙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다. 인민야외빙상장 뒤쪽의 넓은 공지에는 로라스케트장이 꾸려졌다.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과 같은 문화후생시설 및 대중체육기지가 건설되여 운영되고있는것은 의심할바없이 조선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거둔 일대 성과이다.

말타기라는 전통적인 운동종목이 조선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를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또 하나의 인민의 휴식터로 되고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평양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최근년간 평양에는 새로운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문수물놀이장에는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려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이 있다. 여기에는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운동시설과 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물놀이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기쁨이 차고넘치고있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은 조선에서 최단기간에 완공한 스키장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경탄을 자아내고있는것은 인민을 위한 훌륭한 체육기지이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짧은 기간에 건설한 마식령스키장은 최근 조선이 이룩한 성과들중의 하나이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의 세심한 지도속에 평양에 또 하나의 구강병원이 일떠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류경구강병원에서는 치료를 무료로 할뿐아니라 그 봉사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이 병원은 멀지 않은 곳에 일떠선 옥류아동병원과 마찬가지로 세계적기준에 부합되게 건설되였으며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있다.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전 찌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유선증과 유선암을 비롯한 녀성질병들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이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있어 녀성들은 이곳을 《녀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보도하였다.

라오스신문 《꽁탑빠싸손라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을 새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국땅우에 거창한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눈부시게 빛을 뿌릴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중국에서

중국의 산서성에서 빈곤구제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성에서는 지난해 47만명의 농촌지역 빈곤자들을 구제하였으며 올해에도 그만한 수의 농촌주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꾸바에서

꾸바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있다.

2013년에 시작된 정부의 5개년계획에 따라 농사에 유기질비료와 생물살충제가 도입되고 고리형생산체계수립 등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웰남에서

웰남에서 홍역예방접종을 계획하고있다.

2월 24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4월까지 전국적으로 20만명의 2살미만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이 나라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8명, 환자수는 993명에 달하였다 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지난해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10개월동안에 1 304만 7 217t의 조강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한것이다. 2월 22일 이스나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말라위에서

말라위에서 지난해 경제가 5.4% 장성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3.6% 늘어난것이다. 올해에는 경제장성률이 6.1%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싱가포르의 해안가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비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 수상인 라울 까스뜨로가 최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비난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가 평화와 국제적안전에 매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밝혔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인민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자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이 나라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중국 신화통신 일본의 강화되는 우경화책동 규탄

최근 중국의 신화통신이 일본이 현 수상의 취임후 우경화의 길로 더욱 세차게 줄달음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통신은 일본의 우경화가 보다 강화되면 이 《우익이라는 큰 피물》을 저지시키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력사가 증명해준다고 밝혔다. 아베정권의 우익적인 행동은 지역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으며 일촉즉발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통신은 강조하였다.

국제적공약을 준수할것을 요구

웰남외무성 대변인이 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주의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환경위생문제》를 코에 걸고 취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조치가 웰남의 농업과 수산물가공업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은 무역장벽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한 자기의 국제적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들사이의 협조

중국과 세네갈이 2월 20일 친선적이며 협조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세네갈대통령의 중국방문과정에 이루어졌다.

같은 날 중국과 파키스탄은 에네르기, 공업지구 및 도로하부구조건설 등 분야에서 경제적련계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꾸바와 베네수엘라가 최근 농업, 문화, 보건, 운수 등 분야에서 호상 협조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월 21일 라오스와 싱가포르는 교육과 관세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염병 발생

중국의 광동성에서 조류독감환자가 또 발생하였다.

2월 23일과 24일 성보건당국은 성에서 5명이 H7N9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수리아에서 최근 신형독감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있다.

이 전염병으로 하마시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자수는 36명에 달하였다 한다.

반미집회

필리핀의 수도에서 2월 25일 반미집회가 벌어졌다.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4월에 있게 될 미국대통령의 자기 나라 행각을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고 미제국주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필리핀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이를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프리카를 둘러싼 대립과 마찰

아프리카에 관심을 표시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나라들과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데 관심을 돌리면서 경제적지원과 개발원조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있다.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이미 중국은 다양한 경제협조계획을 추진하고있으며 인재양성을 도와주는 등 경제사회관계를 확대하고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자국의 원조와 협조는 전면적인것으로서 모든 아프리카나라들에 해당되며 지역나라들의 인민생활을 개선하는것을 도와주고 자체발전능력을 높여주는데 중점을 두고있다는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얼마전 중국외교부장은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이 없으면 세계의 번영도 없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아프리카의 발전에 가능한 모든 방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와 협조를 계속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립장에 아프리카나라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그런데 여기에 몹시 신경을 쓰는 나라들이 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자는 직접 아프리카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정부개발원조를 늘이겠다, 협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떠들었다. 그는 아프리카를 행각하는 기간에 지역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다만 아프리카의 시장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일본의 대외원조는 중국과 다르며 아프리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수상 대변인은 어느 한 장소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착취적이고 직권람용을 초래하기 쉽다느니, 중국처럼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에게 아름다운 집이나 아름다운 정부건물을 제공하는것과 같은짓을 일본은 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러한 발언들이 중국의 감정을 건드려놓지 않을수 없었다. 중국이 즉시 반발하여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수상의 발언은 매우 상식이 없고 가소로운것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이 저들의 원조가 아프리카에서 일자리를 늘인다고 하였는데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늘이는가고 묻고싶다, 일본수상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많은 액수의 원조를 약속하였는데 우리는 이 원조의 집행정형에 대해 지켜볼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일본이 최근시기 아프리카를 별안간 《외교의 전연》이라고까지 하면서 극성을 부리고있는 속심은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잠재적인 거대한 시장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이 나라들의 지지표를 획득하자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운운하며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나라는 일본뿐이 아니다. 미국도 아프리카와의 경제관계강화에 대해 외워대며 아프리카침투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이 오는 여름에 워싱톤에서 아프리카수뇌자회의를 주최하려는것이 그 집중적표현이다. 미국은 이 수뇌자회의가 세계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아프리카나라들과의 경제 및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것이며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문제도 론의될것이라고 하고있다.

물론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협조와 원조에 대해 떠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시기에도 저들이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장성을 고무추동하겠다느니,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획득만 생각하면서 지역의 환경보호와 발전을 무시하고 투자에만 몰두하고있다고 비난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의 언론계는 미국의 행동에는 중국이 아프리카나라들과 협조를 하는데 대한 우려와 불만이 깔려있으며 아프리카대륙에서 영향력쟁탈전을 벌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여있다고 비평하였다.

하다면 미국과 일본이 무엇때문에 중국을 걸고들며 비난하고있는가.

아프리카는 《자원보물고》로 불리울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발전잠재력이 큰 대륙이다. 희토류나 원유 등 귀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최근년간에는 경제장성률이 계속 올라가고있다. 이로부터 미당국자들속에서는 아프리카를 중시해야 하며 지역에 대한 침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프리카를 홀시하면 다른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된다는 타산에서였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아프리카에 매장되여있는 풍부한 자원과 잠재적인 거대한 시장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추켜세울수 있다고 보고있다. 동시에 유엔에서 적지 않은 성원국수를 가지고있는 아프리카를 틀어쥐면 앞으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려는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보다 쉽게 실현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아프리카를 틀어쥘 방도를 모색하던 미일은 지역나라들속에서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을 저들이 침투할수 있는 좋은 대상으로 삼았다. 《원조》니, 《협력》이니 뭐니 하는 구실을 내대고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투의 폭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술책은 별로 은을 내지 못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이 부대조건이 많은 미국과 일본의 원조보다도 다른 지역 나라들의 지원에 관심을 돌리였기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무역협조가 확대되였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되였다.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였다.

미일은 중국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아예 밀려날수 있다고 보았다. 불안을 느낀 두 나라는 중국을 깎아내리는데 달라붙었다. 미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자원만을 노리고 원조와 투자를 하고있다는 여론을 류포시키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념두에 두고 앞으로 아프리카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일본사이의 마찰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것으로 보고있다.

김철룡

ㄱ-41034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